

장애아동지원 전문가를 위한 감정코칭과 회복탄력성

- 최 성 애 -

■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19:00~

■ 장 소 : 인문관 소극장

■ 주 최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원우회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현장역량강화학술제

특수아동을 돌보는 교육자의 역할

최성애 행복연구소 소장

2017. 11.

1. 특수 아동을 보는 시각

두 가지 현실

세상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현실이며 다른 것은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둘 다 현재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전자는 생명이 다해가는 반면 후자는 모습을 점점 더 드러낼 것입니다. 그 대신 전자의 모습은 지금 당장 우리 기억에 뚜렷하고 강하지만 후자는 불확실하고 희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자는 무시하고 전자가 마치 현실의 전부인냥 착각합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말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아이들은 저마다 꿈과 끼와 소질이 있다고 말하며 특수 학교 아동에게도 창의력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뒷전으로 합니다. 특수 학교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조차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집값을 염두에 뒀야 하고, 수능에 올인 하고 대기업 취직이나 소위 '사'자 달린 직업에 어쩔 수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현재 기성 세대는 수능 점수를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했고, 점수에 따라 직장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인생의 진로가 달라진 경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수능'이라는 단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기업 취업'이란 단어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촉각을 세웁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같은 과반응을 보면서 본인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확인하고 그러한 '현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공감한다고 다 실체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무엇이 사라지는 현실이고 무엇이 새롭게 다가오는 현실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수 아동을 키우는 교사나 학부모는 더욱 더 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애착형성의 중요성
뿌리내리기 (rooting)

* contact comfort. (접촉 위안)

* 애착 손상을 조장하는 사회
우) 산후조리원

· 환경유전성 = 환경유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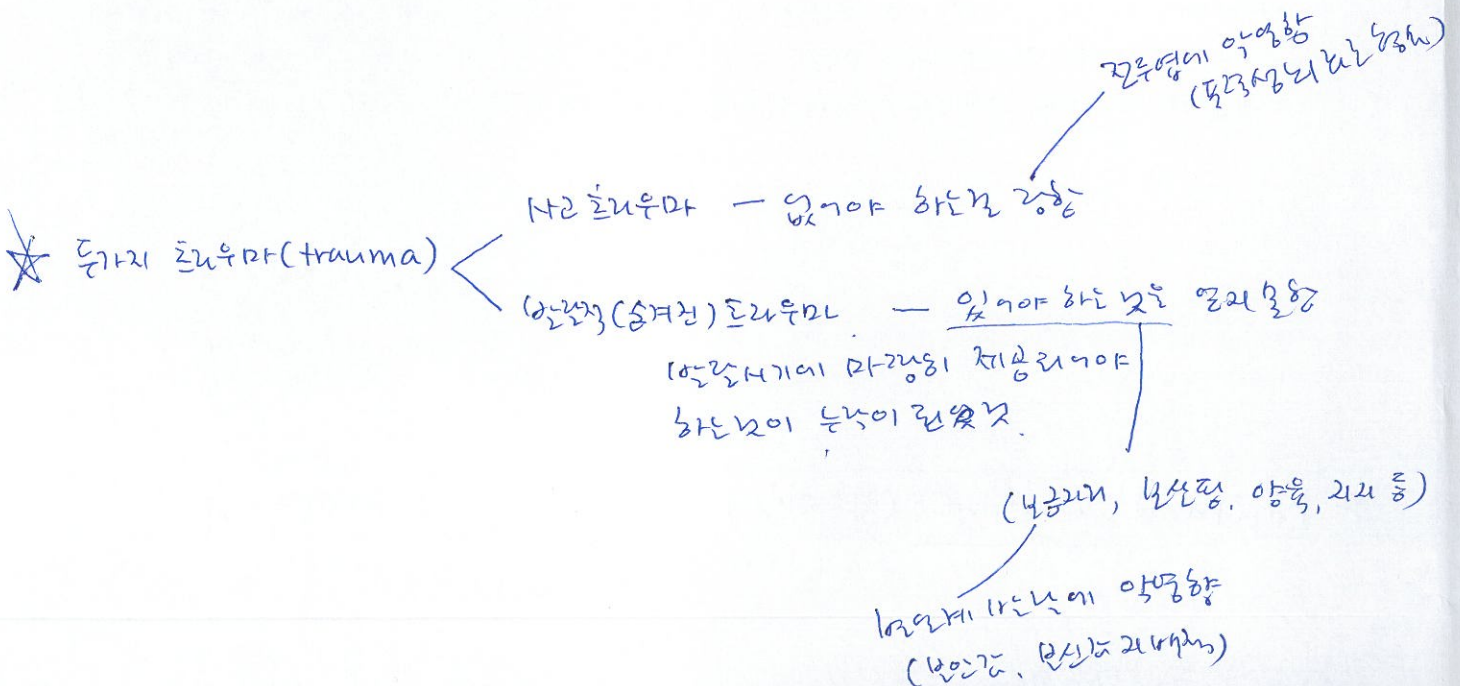
· 양육적 기억 - 몸은 기억한다

팩트를 보아야 한다

과연 지능은 어떠한 현실일까요? 일단 팩트를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신봉했던 IQ는 이미 방대한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연구 결과 지능이 135이상 높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90여년의 추적 연구 한 결과 IQ가 학업 성공, 취업, 수입, 결혼, 건강 등에 평균치 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IQ를 가진 사람도 노벨상 수상을 받는가 하면, IQ 145 이상인 사람도 학교를 중퇴하거나 무직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뜻이지요.. 즉 지능의 의미가 매우 빠른 속도로 퇴색되고 축소되어가는 게 학계의 '현실'입니다.

유전자에 대한 신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생 시절 생물학 교과서에서 한 번 결정된 유전자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생유전학에 따르면 같은 유전자를 지닌 쥐들이라도 생후 첫 12시간 동안 어미가 부지런히 핥아주고 보듬어 준 새끼들은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잘 적응하는 뇌수용체가 많아져서 커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역경에 잘 대처하고, 회복시간도 빠르며 학습도 잘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으며 건강하게 오래 잘 산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태내와 신생아 때의 정서 환경이 매우 중요하여 정서적 환경에 따라 아기의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지 말지, 언제 될지, 얼마큼 될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자 달린 직업의 현실도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 판사, 검사 등 한 때 명예와 부를 동시에 보장해주었던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계약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현실입니다. 불과 3년 전에 6급으로 채용되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7급으로 한 단계 더 떨어지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합니다. '2040 UN 미래 보고서'에는 앞으로 사라질 직업군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4차산업시대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관계를 잘 맺으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훨씬 더 각광받는다고 합니다. 특수 학교 아동들 중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욕심 없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더욱 필요하고, 꾸지람보다 격려가 더욱 필요한 아이들이며 그럴 때 일반 진단에서 "특수아동"이라고 붙였던 레델 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전략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 사라지는 현실에 사용했던 성공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다가오는 현실에 필요한 성공전략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여태껏 사용해오던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매우 효과적인 인재양성 성공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 유래 없는 경제발전 신화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사회가 필요한 인재의 모습도 바뀌게 되고 따라서 성공전략도 따라 바뀌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지요. 아쉽게도 많은 어른들이 철지난 성공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옛 방식은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성공이 오늘날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교육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지요. 성공과 행복을 별개로 보는 시각 자체가 철지난 시각인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구분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지요. 잘못된 시각에서 잘된 전략이 나올 리 만무하지요.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는 최고의 '성공.행복 전략'을 구사해야 하겠습니다.

전략을 세운 후에는 제대로 된 방안들을 실천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략은 큰 구조와 흐름에서 세워지는 방향성이며, 실천방안들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소소한 사항들입니다. 전략과 실천방안은 서로 일치되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고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인재의 개념'을 먼저 다룬 후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합리적 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다루겠습니다.

* 성공은 성공의 DNA이다

* 성공의 Field → 생태계적 의미.

* 내적 성공 모델 - Bondary.

* 현재 부인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새로운 내적 성공 모델은
동성할 수 있다.

* 사강하는 방법은 아닌 것 — 생글지능
(인정하세 사강하는 방법)

2. 인재의 개념

새로운 성공 방정식

성공과 행복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인재와 행복의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 학교 시스템에서 성공한 자를 인재로 선호합니다. 초중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성적과 자격증을 갖춘, 즉 스펙을 갖춘 자를 선호합니다. 학교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물론 지난 반세기 한국의 경우 <명문대 졸업 = 사회 성공>이라는 방정식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사원 선발 기준과 과정이 마치 과학 법칙처럼 공식화되었고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성공'이 '사회 성공'과 다르다는 방대한 연구 결과가 다가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재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백년을 내다보지는 않아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다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쟁이가 아닌 이상 10년 후를 내다보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의 세상을 예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라면 10년 후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이 되어 있겠지요. 즉, 요즘에 대학 졸업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사회가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그 추세를 보라는 뜻입니다. 또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지역적이거나 지엽적인 추세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 결과와 통계에 나타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추세를 봐야합니다. 그 추세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현실이고 무엇이 다가오는 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요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벌, 학점에 이어 영어점수를 '스펙 3종 세트'라고 칭하기 시작하던 때가 2000년대 초였습니다. 2~3년 만에 각종 자격증과 어학연수가 추가되면서 스펙 5종 세트가 되더니 곧이어 공모전 입상경력과 인턴경험이 더해져서 스펙 7종 세트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등장한 스펙 9종 세트에 포함된 항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봉사활동과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요건이 2012년 말부터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삼성고시'의 대변화가 예고된 직후에 대다수의 대기업들의 채용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개 기업 중 9곳이 지원자의 학력, 자격증 등 스펙에 의존하기 보다는 책임감, 대인관계, 실천력, 참신함 등 인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핀다고 합니다. 아예 지원서에 스펙을 적는 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블라인드 면접, 오디션 면접, 회식 면접, 5분 자기PR(소개) 등 자신을 면접관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잠재력과 독창성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비전과 열정을 품고 살아왔는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야 합니다.

* 미주한강

강령작성이란?

강령은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동기를 글로

바탕잡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즉, 스토리텔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스펙은 파편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어실력과 사회봉사와 컴퓨터 자격증 같은 스펙은 서로 불연속적이며 분절된 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정한 순서 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또는 특별한 의미 없이 남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취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앞뒤전후 맥락이 있어야 하며, 기승전결의 전개가 있어야 하며, 의미와 가치가 담겨있어야 하며, 감동과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스펙은 모두가 다 갖추고자 하는 비슷한 요인들이기에 유사성에서 돋보이기 위해 남보다 많이 쌓아야 합니다. 즉, 남보다 얼마큼 더 높거나 많은가로 압축되는 양적 비교에서 베스트가 되기 위해 남과 끝없는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스펙도 그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추려고, 남과의 경쟁에서 돋보이는 베스트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불안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개인은 소멸되고 맙니다. 즉,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 주인공이 다른 출연자와 별다를 바 없어집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나만의 이야기이기에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unique)해야 합니다. 유사성이 아니라 유일성이 핵심이며, 남과 얼마나 다른가가 중요한 질적 비교이며, 자신만의 경쟁력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 주인공으로써 다른 출연자와 확연히 차별되는 인물로 등장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몇 가지 안 되는 스펙을 독특한 조합으로 연결시킨 학생이 남다른 매력을 내뿜는 인재인 게지요.

스펙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스토리는 살아온 모습과 살아가는 방법과 인간의 품격(인성)을 보여줍니다. 인성은 벼락공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험 날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성은 오랜 기간에 걸친 학습으로 담여지는 평상시 실력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는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지녔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

왜 기업들은 인성과 관련된 요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글로벌 무대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스케일의 첨단 연구가 이런 인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의력에는 독창성이 필수이지만 경제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생각과 더불어 세상을 둘러보는 행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우연의 일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발상이기에 튼튼한 기초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억(기초지식)과 논리(사고력)라는 두 차원이 이루는 평탄한 토대 위에 상상력이 뻗어 나가게 해야 합니다.

* meta-emotion (초감정) : 감정이면에 있는 감정 → 감정에 대한 감정

- 감정의식, 감정의 기억, 미의식

초감정은 야망, 분노, 논리의 감정을 넘어 감정의 감정을. ~ 대개 무의식적 감정이지만 의식하는 감정의 감정을 뜻함.

창의력이란 이토록 다양한 능력의 총집합이기 때문에 창의력 연구는 무려 170가지의 관련된 요소를 나열합니다. 하지만 크게 6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튼튼한 기초 지식, 알쏭달쏭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퍼지 사고력, 문제 해결 대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호기심, 새로움을 수용할 수 있는 허심(여유),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낮은 성공률에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 그리고 백 번 틀리고도 기죽지 않고 백한 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적 자세입니다,

6가지 중에 기초와 사고력은 인지적 요인이지만 나머지 네 가지인 허심,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은 심적(정의적) 요인입니다. 창의력에는 머리의 영역만이 아니라 가슴(심적)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단어들에서 나타나듯이 애, 인, 충, 공, 덕, 배려, 은혜 등이 심적 영역의 개념들이며, 이런 개념들을 통틀어 인성이라고 칭합니다.

인성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학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랜 학습의 결과를 두고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성도 실력인 것입니다.

인성이란 올바르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것을 몸으로 실천하자면 마음이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인성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일치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이며, 앎과 삶이 베풀음으로 승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성숙한 어른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업체가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합리적' 인재

심적 영역은 감정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애, 노, 오, 욕, 비, 공, 우 등)에도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듯이 창의력에 감정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진정한 예술과 모든 과학의 원천이 바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인 것입니다.

흔히 창의력의 텃밭인 융합을 기술과 인문학을 합친 합학(다학문, 접학문)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성을 강조하는 머리의 이치와 감정을 뜻하는 가슴의 이치가 합쳐졌다는 뜻으로 '합리'라고 말합니다. 즉, 최고의 인재는 머리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잘 쓰는 사람인 것이며, 그런 인재가 '합리적' 인재인 것입니다. 합리적 인재는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더 나가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3. 행복한 수업 만들기

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라

구시대에는 평생직장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년 정도였으니 직장 은퇴와 거의 동시에 삶에서 '은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다닐 직장을 얻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학력(學歷)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에 취업한 자녀도 압도적인 대다수는 10년 안에 이직합니다. 정보홍수와 정보화로 압축되는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한 세상의 도래가 평생직업이란 단어를 퇴출시키고 그 대신 평생학습이란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는 “고3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줄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초중고 교육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생직업을 구하기 위한 스펙(학력學歷)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학력(學力)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지식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암기력은 '남의 것, 현 것'을 자기 머릿속에 담는 소비력이라면, 창의력은 '자기 것, 새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력입니다. 생산력을 갖춘 사람이 일터에서 우대 받는 건 당연합니다.

2) 직업이 아니라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

직업의 수가 지난 30년 사이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단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것만이 아니라 10년 안에 현존하는 직종의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직업의 가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최초로 각광 받을 직업 70개를 소개한 리스트에 뇌파통역자, 회계식물학자, 초휴머니스트 상담사 등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고작 10개 정도의 현존하는 직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날 30만개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는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직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진로 지도하는 것은 아이를 막다른 골목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직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를 최대한 살려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야 합니다.

3) 입시(入試)가 아니라 입지(立志)에 맞춘다

구시대에는 10%였던 대학진학률이 새시대에는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1개 밖에 안 되던 대학 수가 새시대에는 356개로 급증하였습니다. 구시대에는 고교졸업인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훨씬 웃돌던 “대학 들어가기 어려운 세상”이었지만 이제 곧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인원보다 많은 “학생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뒤바뀌는 (교육의 '천지개벽')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물질적 빈곤 시대에 살았다면, 요즘 우리 학생들은 정신적 빈곤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물질적 빈곤 대신 정신적 빈곤이 더 큰 이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정신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드림사회”의 저자 롤프 연센에 의하면 구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하는 시점은 개인별 국민소득 US\$15,000이라고 합니다. \$15,000 이하일 경우,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의식주가 더 확실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행복감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이미 의식주가 해결된 후에는 돈을 더 벌어도 행복감은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마음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한국이 개인소득 \$15,000을 한일월드컵 직후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형성기 전부를 \$15,000 이하에서 보냈기 때문에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15,000 이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젠 우리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관심사와 꿈)을 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는 저력이 나올 것이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아성취와 자아창조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진학이 아니라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입시(入試)가 아니라 입지(立志)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입지란 ‘뜻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꿈과 비전을 세워보는 기회를 모든 학생들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 즉 빌리빙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4) 꿈꾸라 하지 말고 꿈같은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빌리빙이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어라, 꿈을 만들라, 꿈을 펼쳐라. 공부하라는 말 다음으로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꿈은 머릿속을 살살이 뒤져봐도 없고, 아무리 용을 써도 생기지 않으니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고 합니다.

실로 많은 학생들은 꿈이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꿈을 꺾어야’라고 작정한다고 꺾이지 않습니다.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악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꿈은 엉뚱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한창 멋을 부리는 사춘기 때에 꿈의 씨앗이 가슴에 심어지기도 합니다. 겉멋으로 유치하게 흉내 내던 게 점차 성숙한 꿈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서 새로운 뜻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뜻’을 가슴에 품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꿈과 달리 뜻은 의도적으로 지닐 수 있습니다. 각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동반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학생들이 잘사는 의미를 가슴 깊은 곳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라고 하지만 꿈과 끼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꿈과 끼를 맘껏 발휘했지만 진작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만 안겨준 사례가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유능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굿 워크스 프로젝트(Good Works Project)’는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입니다. ‘의미’는 여러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 가족, 단체, 지역, 국가, 인류, 자연(모든 생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본인에게만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소인배라 했습니다. 대인은 더 높고 넓은 차원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우리는 유능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의 입장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잘 살겠다고 꿈과 끼를 펼치는 것은 소인배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모두를 위해 베푸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꿈과 끼에는 베품과 나눔의 의미가 동반되어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방정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복 = (±)꿈 X 끼 X 노력

행복은 끼와 노력과 꿈의 곱셈입니다. 그리고 끼(재능)와 노력은 100점에서 0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꿈이 원대(100점)하고 타고난 재능이 대단(100점)한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꽁’(0점)이지요. 또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들, 꿈 달성에 필요한 재능이 없다면 결과 역시 ‘꽁’입니다. 하지만 꿈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는가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한들, 소인배의 꿈을 지녔다면 모두에게 불행(마이너스 행복)만 안겨줍니다. 긍정적인 의미(베품)를 지녔을 때에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6) 악몽과 환몽이 아니라 꿈을 허락한다

재능이 없는 분야에 환상적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환몽이며, 자신의 관심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주입시켜준 꿈은 악몽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흔히 환몽을 추구하고, 그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모습에 불안해하는 어른은 흔히 아이에게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도록 악몽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의 꿈마저 주입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몽과 악몽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진정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지닐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진정한 꿈은 자신의 재능과 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이 공부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꿈을 실현 시킬 재능이 확실히 있고 성공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진정한 꿈입니다. 대폭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그

방향으로 재능이 부족하면 허황된 꿈, 즉 환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환몽이 아니라 아이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7)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되세요

우리가 아이의 환몽을 지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아이는 우리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몽은 철없는 아이들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무가내로 추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환몽은 흔히 도피성 행위입니다. 괴롭거나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주로 불안정한 가정적 환경)에 놓여 있거나 공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에 아이는 스트레스를 욕설, 폭언, 폭행 등 공격적 행위로 분출하거나 술, 게임, 포르노 중독 등 도피성 행위로 일시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환몽이 그 도피성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여전한데 무작정 환몽에서 깨어나라고 닦달하면 풍선효과로 아이는 다른 도피성 행위나 심지어 공격적 행위로 대처해 나가게 됩니다.

환몽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언젠가는 환몽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물론 또 다시 다른 환몽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끝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정한 꿈을 추구하게 되는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왜 우리가 아이를 지지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아이의 환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하는 바람에 아이와 관계가 나빠지거나 아예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나중에 환몽에서 깨어난 아이가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심한 실망감, 고립감, 절망감으로 아이는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긴 여정을 완주하지 못하고 꿈 만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가 훗날 스스로 환몽임을 깨달았을 때 의견을 묻고 논의하며 좀 더 성숙한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새 시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 찾는 긴 여정을 등반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베이스캠프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눈보라 때문에 엉뚱한 산 정상에 헤매다가도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재정비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지지해주는 서포터스들이 있으면 등반에 성공할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긴 여정에 춥고 힘들면 되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곳과 전폭 지지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지지자는 많지도 아니고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이 꼭 부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외할머니도, 이웃도, 선생님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을 추구하는 아이의 인생 베이스캠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부모와 같은 스승이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8) 회복탄력성을 갖추어 준다

남이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인재가 아닙니다. 그건 무척 따분한 일입니다. 인재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거나, 같은 일이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개인이 꿈을 지닌다면 조직은 비전을 지녔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이 인재라면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창조하는 일과 개척하는 일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결국 모험심이란 남의 뒤를 따라가는 기술자(파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앞서가는 전문가'(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모험이란 실패를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미리 실패를 예방하고 과보호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보호 아래 있을 때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온실화가 아니라 자생력을 갖춘 야생화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상처를 입고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회복탄력성은 배터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서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출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것과 수시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터리 충전 수위를 모니터하고 자기 전에 재충전해 놓습니다. 그러나 진즉 우리 몸 사용하기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합니다. 알아차림에 둔감해서 몸이 병에 걸려 앓아누울 때까지 방치해 버리거나 재충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탈진상태로 갈 때까지 몸을 혹사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심신 에너지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운동하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기, 조절하고 조율하기에 대한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큰 스트레스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회복탄력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배터리가 오래 일을 할 수 있듯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아이가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9) 자기조율 능력을 갖추어 준다

회복탄력성의 핵심은 긍정적인 태도와 자기조율입니다. 긍정성은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교실과 가정에 긍정성 쌓기를 해야 합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실수한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마추어는 실수 한방에 무너집니다. 실수한 사실 때문에 창피함, 굴욕감, 미안함에 시달립니다. 혹시나 다시 실수할까봐 두려움, 무거움, 초조함에 의기소침해집니다. 또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 초라함, 자기혐오감에 점점 심사가 뒤틀립니다. 부정적 감정이 꼬리를 물고 더 강한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면 결국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즉, 실수 그 자체가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실수에 동반되는 부정적 감정이 독이며 파괴적인 것이지요.

프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자기진정하고 평정심을 회복합니다. 실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겠지요. 불편하고 암담한 마음을 추스리는 자기진정은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자기조율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고, 경험이 풍부해져야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법이며, 그제야 비로소 성숙해졌고 ‘중심’이 잡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은 과거는 되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시점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덤덤하고 담담한 중립적 감정상태를 뜻합니다. ‘중심’은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으로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는 지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기조율은 모든 분야의 프로들이 다 실천합니다. 가수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축구선수가 프리킥을 차기 전에, 외과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조율을 합니다. 이들은 프로가 되기 위해 자기조율을 연마한 것입니다. 즉, 자기조율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기에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조율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분야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분야입니다. 자기조율 못하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동물같이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 못사람의 인생도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욕망을 조율하지 못하는 소인배의 삶을 사거나 심지어 감정이 절단되어 공감력 없이 극도로 자기도취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의 신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받고서 사회에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한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인생의 프로가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더불어 지혜, 그리고 정보처리와 더불어 자기조율 능력을 갖추어주면 좋겠습니다.

10) 감정코칭의 필요성

자기조율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이 감정코칭입니다. 감정코칭의 핵심은 “아이의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이해하라. 감정은 다 수용하되 행동은 수정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코칭은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법이며, 아이와 한 편이 되도록 하는 인간관계법이며, 아이가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지도법인 것입니다.

감정코칭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또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에) 긍정성이 쌓여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전 직원들에게 감정코칭을 배우도록 기회를 주며 미 국방부에서도 군인들에게 감정코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방법의 중심에 감정코칭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코칭은 교육부가 2013년도에 우수 자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기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증’하였고, 감정코칭 전문가들의 단체인 감정코칭협회가 2014년 2월 8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요약: 아이가 어른의 현실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의 현실에 맞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면서도 어른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입시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아직도 산업화 성공신화 패러다임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어른은 아이를 오늘날 어른들의 현실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래는 망가집니다. 아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2010년대가 아니라 2020, 2030년대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어른은 아이에게 오늘날의 현실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맞춰줍니다. 오늘날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을 바꿔서 좀 더 행복하고 희망적인 현실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게 현명한 어른들의 선택입니다.

위에 제시된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 앞서 먼저 해야 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이 지식교육에서 ‘지혜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교육의 중심이 이성과 감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동해야 하고, 교육의 목표가 어린애 양산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 양성이어야 합니다. 어린애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성숙한 어른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공부가 공헌으로, 배움이 베품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산업화를 우리가 거뜬히 해냈듯이, 세계를 놀라게 한 정보화마저 죽 먹듯이 해냈듯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엄청난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환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 참고문헌

조벽 (2015). 인성이 실력이다. 서울: 해냄출판사.

최성애 조벽 공저 (2013). 청소년 감정코칭. 서울: 해냄출판사.